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유해의 진정성에 대한  
교 령**

본 주교는 2021년 3월 11일(목)과 그 이후에 발견된 복자 추정 세 분의 유해에 대한 해부학적 고고학적 정밀감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세 분의 유해가 순교 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로 판명되었습니다. 교회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8월 18일(수)에 교회법원은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확실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주교는 이 유해들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라고 선언하며,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2021년 9월 1일(수)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

## 순교복자들의 유해 발견을 크게 기뻐하며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 진정성에 대한 교령 반포에 즈음한  
교구장 특별담화문)

### 1.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섭  
리로 우리 교구는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세 분의 순교복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11일, 완주 초남이성지에서 바우배기 일대를 정비하다가  
순교복자들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함께 출토된 일부 유물(지  
석)에는 인적사항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어 그 유해가 순교복자들의 유해임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순교자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불필요  
한 의혹이나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 유물과 유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뢰했습니  
다. 여러 방면에서 면밀하게 검사한 최종 결과, 두 분의 유해는 1791년 신해박  
해 때 순교하신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32세)와 권상연 야고보  
(40세)로 판명되었고, 또 한 분의 유해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복자 윤  
지현 프란치스코(37세)로 밝혀졌습니다.

2. 이 발견은 실로 놀라운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 삼  
아 성장해온 우리 교회가 그 순교역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의 유해  
를 비로소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먼저, 이를 섭리하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 하느님의 크나큰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선물을 베풀어주시는 뜻이 무  
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앞으  
로 두고두고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올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대유행으  
로 모든 영역이 큰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관점에 한정하여 우선 두 가지 메시  
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 4. 첫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처럼,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여(마르 12,30 참조) 하느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하느님은 항상 첫 번째였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재산, 가족과 목숨마저 내놓으셨습니다.

하느님을 으뜸으로 모셨던 윤지충은 온갖 회유와 문초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마치 잔치에 가듯이 즐거운 표정을 지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엄 있는 태도로 끊임없이 교리를 설명하셨고,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칼날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충실하셨던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는 이후 모진 박해로 위기에 내몰린 교우들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교우들은 그분들의 순교에서 신앙의 용기를 크게 얻었으며, 그분들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이 박해시대의 교우들에게서 공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베아 주교의 기록(1797)을 짧게 요약한 『시복 자료집』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수 9일 후에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때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들의 피에 적셨으며(...) 당시 병으로 죽어 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고 나온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에 감화를 받아 모진 박해로 신앙이 흔들렸던 교우들은 다시 마음을 바로잡았고, 적지 않은 외교인들이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윤지충이 옥에서 피와 눈물로 쓰신 『죄인 지충일기』를 필사하여 영적 독서로 읽으며 믿음을 깊이 다졌습니다. 아울러 그분들의 순교는 이후 교우들의 순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는 박해시대에 신앙이 더욱 자라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조선의 첫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님은 나중에 두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칭송하셨고, 김대건 신부님도 윤지충의 거룩한 순교를 칭송하며 ‘조선의 첫 순교자’로 높이 공경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하느님께서 코로나 사태의 대재앙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드러내신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에는 특히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웅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기”(로마 8,37) 때문입니다.

5. 둘째, 신앙으로 친교와 형제애를 다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장소인 초남이성지 바우배기는 본래 유항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유항검은 초남이 일대의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또 유항검은 윤지충과는 이종사촌이고 권상연과는 내외종간 사촌이었기 때문에, 유항검이 최초의 순교자들을 그곳에 모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혈연 차원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친지들 사이에서 삼강오륜을 저버린 죄인으로 크게 비난을 받았었고 또 실제로 그 죄목으로 참수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자신의 땅에 묻는 것은 큰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이번 발견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묘광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격하게 깊이 파 순교자들을 모셨고 또 묘지석을 땅속에 묻은 것을 보면, 그런 위험을 인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을 그곳에 모신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항검은 윤지충과 권상연보다 몇 년 일찍 세례를 받고 호남이 사도로서 신앙의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몸소 실천하며 노비와 마름, 작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과 재물을 나누었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충분히 모시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유항검은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을 극진히 공경했습니다. 이번 유해가 발견된 곳은 초남이 성지 일대에서 전망이 좋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항검은 자기 땅 어디에서나 순교자들을 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계신 순교자들을 찾아뵙고, 또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묘소를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얻고 신앙을 깊게 다졌으리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을 늘 공경하던 유항검은 마침내 그분들이 가신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곧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순교자들을 극진히 공경하던 유항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몇몇 교우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유항검과 그 가족들을 바우배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교하신 윤지헌 프란치스코를 친형 윤지충의 묘 밑에 모셨습니다. 이때에도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유항검은 대역죄인으로 단죄 받아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을

뿐 아니라 집은 파가저택 되고, 능지처참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순교자들을 바우배기에 모셨던 것은 신앙으로 다져진 초남이 신앙공동체 교우들의 신앙과 형제애 때문이었습니다.

신유박해 때 전라도에서 희생된 교우들의 수는 200여명에 이릅니다. 그 대부분은 호남의 사도 유항검의 고향 초남이 신앙공동체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천주교회사의 진주로 일컬어지는 동정부부 순교복자 탄생의 배경에도 이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초남이 신앙공동체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분 순교자의 유해가 발견된 바우배기 묘소에서 분명해진 점은 초남이를 기점으로 교우들이 신앙으로 서로 연대하고 깊은 친교와 형제애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산 이들만이 아니라 순교하신 분들과도 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 이미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6.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전주교구는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을 위시하여 호남의 사도 유항검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스민 땅이며,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교우촌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순교자들의 신앙을 지켜온 터전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교구가 이번 유해 발견을 계기로 순교 영성을 더욱 되살리는 일은 교구의 미래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세상을 위한 중대한 영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7. 이번 최초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의 뜻은 순교자들이 지니셨던 영성을 우리도 본받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갈수록 멀리하고, 창조된 목적에서 점점 빗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느님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연대와 형제애보다는 개인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와 극심한 개인주의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성찰한 두 메시지는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쇠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교 영성입니다.

저는 이러한 순교 영성을 비롯하여 순교자들의 신앙과 모범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최초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알고 본받기 위해 그분들에 관한 『공술기·신문기』와 북경의 구베아 주교의 『기록들』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시기 바

랍니다.

둘째, 세 분 순교복자를 모신 초남이성지를 자주 순례하고, 순교의 분명한 증거인 유해 앞에 머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 혹은 본당에서 124위 순교복자들의 시성을 지향하며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를 바치시고, 이미 각 본당별로 조직되어 있는 순교자현양분과를 중심으로 순교자 현양에 적극 힘쓰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성지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았거나 돌보지 못한 신앙의 유적지를 보존하고 성역화하는 데에 많은 기도와 물질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모두 이렇게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현양함으로써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교구가 더욱 쇄신되어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복음화에 충실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전주교구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21년 9월 1일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